

# “청소년들의 톡톡 튀는 인권 아이디어 돋보여”

### 동구 생활 속 인권작품 공모전 그림·UCC영상 등 23개 우수작 시상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최근 ‘청소년 인권을 말한다’는 주제로 제9회 생활 속 인권작품 공모전을 개최하고 우수작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청소년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통해 인권의식을 향상시키고 생활 전반에 인권존중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공모전은 광주동구 청소년수련관과 협력해 글쓰기, 그리기, UCC영상 등 세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94점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이중 우수작 23개 작품이 최종 선정됐다.

수상작은 ▲그리기 분야 ‘존엄한 인권선언 아래 존엄하지 못한 사람들’(송원여고 정세은) 등 10편 ▲글쓰기 분야 ‘절름발이 우리 외할아버지’(마지초 5장다순) 등 10편 ▲UCC 영상 분야 ‘누구를 위해 중을 올리나’(동구청소년미디어장구) 등 3편이다.

동구는 앞으로도 인권공모전은 물론 인권강의, 교육연극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인권 친화적 문화를 확



산시키고 인권정적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공모전에는 청소년들의 높은 관심 속에 인권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녹아든 작품들이 많이 출품됐다”면서 “주민들의 일상 속 인권감수성과 인권 존중의식 고취로 인권 친화적 문화를 정착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모전 수상작은 9월 12일까지 동구청소년수련관 1층에 전시되며, 수상작을 활용해 다양한 인권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ACC, 호남·제주권 LINC+사업단협과 업무협약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직무대리 최원일)과 호남·제주권 LINC+(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단 협의회는 창의적 문화·예술 사업을 통해 환경문제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업무협약을 최근 서면으로 체결했다.

호남·제주권 LINC+사업단 협의회엔 군산대, 목포대, 우석대, 원광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대, 제주대, 조선대, 호남대 등 10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ACC 디자인랩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연합 교육프로그램 운영, 친환경 사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창작 지원, 친환경 사업 경진대회 공동개최를 통한 시제품 발굴 및 사업 연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대학에서 2팀을 선발, 관련 분야 기업의 상담과 지도, ACC 내 창작 공간·설비 및 마케팅·판촉 등을 종합 지원한다.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된 우수팀은 ACC에서 본 전시를 내년에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

## 법무부청소년 범죄예방위 담양지구, 환경 정화 캠페인



법무부청소년 범죄예방위원회 광주지역협의회 담양지구위원회(위원장 서생현) 위원들이 최근 담양 관방제림 학교교, 추성경시장 일대에서 담배꽂초, 종이컵, 빈 병 등 쓰레기 180kg을 수거하고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자연보호 및 정화 캠페인을 실시했다.

<청소년 범죄예방위 담양지구위원회 제공>

## 동신대 정보보안학과 재학생 ‘학술대회 특별상·우수상’ 수상

동신대학교 정보보안학과 재학생 4명이 한국융합보안학회(KCGSA)의 ‘2021 하계학술대회’에서 특별상과 우수논문상을 받았다.

김창석(3년)씨는 학과 정보보호동아리 ‘호키스(HAWKIS)’에서 수행한 ‘망분리 환경 취약점 분석 및 보안 아키텍처 구성방안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제출해 특별상을 수상했다.

같은 동아리 김대운·조영태·최정안(4년)씨는 클라우드 기반 악성코드 프로젝트 결과를 논문으로 제출, 악성코드 분석을 통해 보안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뛰어난 평가를 받아 우수상을 안았다.



왼쪽부터 김창석(특별상), 김대운·조영태·최정안(우수상)씨.

김종민 정보보안학과 교수는 “학과 정보보호동아리 프로젝트를 통해 실무에 필요한 역량을 높인 재학생들이 각종 학술대회에서도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있다”며 “재학생들의 전공 관련 실무 능력을 더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준 기자 chae@kwangju.co.kr

## 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 서구 복지관에 위생물품 전달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본부장 양진식·사진)는 지난 31일 광주시 서구 금곡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200만원 상당 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영·섬유본부는 손 소독제, 파스 등 지역 취약계층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위생물품을 전달했다.

양진식 본부장은 “직업 모금으로 준비한 작은 정성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가 얼른 종식돼 지역사회가 활기를 찾기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조선대 공공인재법무학과, 로펌 인턴십 ‘성료’

조선대학교 법사회대학 공공인재법무학과는 여름방학 로펌(Law-Firm) 인턴십 프로그램 제1기 교육의 전 과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7월~8월 두 달에 걸쳐 진행된 프로그램은 여름방학을 맞아 전공 과목에 대한 고찰과 실무지식 전달, 현장 학습을 진행해 학생들에게 동기 부여와 진취적인 사고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됐다.

<조선대 제공>

## TV프로그램 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2부	2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50 두 번째 남편(재)	35 아모르파티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속아도 꿈결(재)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이 맛에 산다	10 SBS 뉴스 30 특집 살맛나는 오늘
[11]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20 이슈 픽 썸과 함께 스페셜 50 1020, KBS를 말한다 55 UHD 스텐더	00 경찰수업(재)	30 푸르기 식사교실(재)	00 애니갤러리 30 헬로카봇11 45 애니메이션 런닝맨 2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15 2020 도쿄 패럴림픽	00 12 MBC 뉴스 20 치치핑핑 시즌3 50 보보보 좋아 좋아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내모세모
[1]	00 KBS네트워크특선 이스트 라이프 50 근대사 100년, 그들의 증언 55 운동맛집 5분 레시피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열린채널 광주	00 KBS 뉴스타임 10 브레드 이발소 2(재) 30 TV 유치원	55 50 2020 도쿄패럴림픽	00 뉴스브리핑
[3]	10 시청자주간 특집 감사 음악회	00 KBS 뉴스타임 10 브레드 이발소 2(재) 30 TV 유치원	55 50 2020 도쿄패럴림픽	00 뉴스브리핑
[4]	00 시사건건	00 UHD 환경스페셜(재)	55 5 MBC 뉴스	00 행복설계 알려배기(재) 55 닥터 365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또봇V-우주수호대 15 종알종알 돌돌이 30 풀썸 영화가 좋다 50 통합뉴스룸 ET	10 PD수첩(재)	00 SBS 오뉴스 35 KBC 저녁뉴스 50 백종원의 골목식당(재)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50 오매! 전라도	50 닥터 365 55 테마스페셜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이리 오나라 조선클럽	50 빨강 구두	05 두 번째 남편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속아도 꿈결	3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3		30 KBC 8 뉴스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00 랜선 장터	00 구해줘! 속소	00 골 때리는 그녀들
[10]	00 생로병사의 비밀 50 더 라이브	40 표리부동	30 라디오스타	40 백종원의 골목식당
[11]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50 스튜디오 K		
[12]	10 2020 도쿄 패럴림픽 하이라이트	15 스포츠 하이라이트 40 통합뉴스룸 ET(재)	10 오마이싱어	20 나이트라인 50 닥터 365 55 박이선과 든위리 돈해피(재)

##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30 아기상어 울리와 윌리엄
05:5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45 역사놀이패 아리아리
06:1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글로벌 뉴스	18:00 생방송 방과 후 토론
07:00 코요태	12:10 극한직업	19:05 미스터 마구
07:15 출동! 슈퍼윙스	13:00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19:35 자이언트 팽TV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4:10 EBS 다크프라이	19:50 건축탐구 - 집
07: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5:05 지식채널e	20:40 세계테마기행
08:00 딩동댕 유치원	15:25 클래식e	<별볼로도
08:30 한글용사 아이야	15:45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풍요가 함께하길, 이집트 사막 로드>
08:45 꼬마버스 타요	16:00 마사와 곰	21:30 한국기행
09:00 시공	16:15 개구쟁이 조이	<우리는 백두대간에 삽니다 3부
09:15 역사놀이패 아리아리	16:30 딩동댕 유치원(재)	덕유산 사나이들의 순정>
09:30 추피와 친구들	16:50 내 친구 문덕이	21:50 EBS 다크프라이
09:40 우리집 유치원	17:00 EBS 뉴스	22:45 바닷가 사람들
10:30 한국기행(재)	17:20 못 말리는 어린 양 손	23:3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1일(음 7월 25일 壬子) ☎ 010-9790-8237

<p><b>子</b></p> <p>36년생 내면적 실정에 충실함이 이익이다. 48년생 가득 찬 것 같지만 허술하다. 60년생 관련 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72년생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반드시 이루고 볼 일이다. 84년생 대로를 걷는 것이 가장 편하고 빠른 길이다. 96년생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융통성을 발휘함으로써 서로 이해하고 양보 하라. 행운의 숫자 : 29, 88</p>	<p><b>午</b></p> <p>42년생 천신만고 끝에 목적을 달성하고 매우 기뻐하는 조주 이라. 54년생 망실 될 수도 있으니 관리를 잘 하라. 66년생 직접적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78년생 불협화음은 많은 것을 알아갈 수도 있으나. 90년생 고정 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핵심을 살릴 수 없을 것이다. 02년생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1, 51</p>
<p><b>丑</b></p> <p>37년생 남을 시켜서는 답답할 것이니 직접 실행하는 것이 낫다. 49년생 조치를 취하기 전에 밝히는 것이 효과적이다. 61년생 배분과 할애를 잘 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73년생 재량이 되어 돌아 올 수도 있음을 알자. 85년생 원칙대로 처리한다면 면책할 수도 있다. 97년생 의외의 결과를 앞에서 매우 기뻐하는 태양이다. 행운의 숫자 : 34, 75</p>	<p><b>未</b></p> <p>43년생 재물과 인연이 깊은 날이니 다방면으로 노력하자. 55년생 적극적으로 행해야 성과가 클 것이다. 67년생 아주 가까운 곳에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 79년생 합목적성과 투명한 성과로 배가 시키게 된다. 91년생 진행에 따른 성과가 드러나고 있는 면모이다. 03년생 처음으로 당하는 일 이어서 충격이 클 수다. 행운의 숫자 : 09, 62</p>
<p><b>寅</b></p> <p>38년생 말만으로는 아니 되니 과감하게 실행함이 해결책이 될 것이다. 50년생 처음부터 접하지 않는 것이 낫다. 62년생 단순한 비교는 착각을 일으키게 하느니라. 74년생 수순대로 따라야 할 일이다. 86년생 일에도 시기와 조건이 있는 법이니 다방면으로 살펴보고 행하라. 98년생 서둘러서 좋을 일은 없느니라. 행운의 숫자 : 91, 86</p>	<p><b>申</b></p> <p>32년생 운운만 잘 한다면 큰 이익을 꾀 할 수 있다. 44년생 바람직한 여건이니 적극적으로 수용해 도 된다. 56년생 기존에 있어 왔던 것이나 다루기가 용이 하겠다. 68년생 여태까지 해오던 대로 유지 하고만 있으면 성과를 거두리라. 80년생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바니 빨리 청산 하자. 92년생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얻는다. 행운의 숫자 : 19, 77</p>
<p><b>卯</b></p> <p>39년생 사소하게 여겨 왔던 것 속에 비밀의 열쇠가 숨어 있다. 51년생 여러 가지를 감안하지 않는다면 맹점을 드러낼 수 있다. 63년생 시선 집중을 받을 수도 있다. 75년생 작심 한 바와 행동이 시종일관 일치해야 성취하리라. 87년생 희망의 노래가 점점 가까이 들려오고 있다. 99년생 사서 고생할 필요까지는 없다. 행운의 숫자 : 40, 91</p>	<p><b>酉</b></p> <p>33년생 서늘하고 한시바빠 본론으로 들어가야 옳다. 45년생 지금, 본래를 보여줘야 할 때가 되었다. 57년생 양호한 단계에 이르게 되는 모양새다. 69년생 현대의 행방을 좌우할 만한 요체는 따로 있느니라. 81년생 불안정했던 원인이 요소가 해소 될 수도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93년생 지금도 모호하지 않다면 집체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24, 97</p>
<p><b>辰</b></p> <p>40년생 여유를 갖고 세밀하게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52년생 점진적인 발전 속에 일시적인 정체를 보인다. 64년생 한계를 벗어난다면 중차대한 단계를 밟을 수 있다. 76년생 머지않아서 한계점을 드러내게 된다. 88년생 오늘날의 고생은 미래의 행운을 부를 것이다. 00년생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날이다. 행운의 숫자 : 33, 55</p>	<p><b>戌</b></p> <p>34년생 조화와 균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46년생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확실하게 보완해야 두어야 할 때 이라. 58년생 건너뛴었다 가는 망신당하는 수가 있다. 70년생 임시 봉합의 형태에서는 위험하므로 정대로 아니 된다. 82년생 상응하는 조건에 부합한다면 활성화 시킬 수 있게 된다. 94년생 뜻 깊은 날이다. 행운의 숫자 : 21, 74</p>
<p><b>巳</b></p> <p>41년생 중대한 구도이니 정황에 맞게 도모해야 한다. 53년생 진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접하게 되리라. 65년생 배락 차게 서둘러야만 겨우 이룰 수 있을 것이다. 77년생 철저하게 선별하는 작업이 우선 되어야 한다. 89년생 주변을 너무 의식하다보면 목적을 이루기 어려운 법 이다. 01년생 초심을 잃지 말라. 행운의 숫자 : 49, 69</p>	<p><b>亥</b></p> <p>35년생 말속이 핵심이 숨어 있다. 47년생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주변과 조화를 깨뜨릴 수도 있으나. 59년생 유창한 능력이 휘둘릴 수도 있으나 긴장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71년생 가까스로 발전 되어가고 있다. 83년생 편에 치우친다면 비능률적일 수밖에 없다. 95년생 죄는 지은 데로 가고 덕은 두은 데로 간다. 행운의 숫자 : 47, 67</p>